

최근 멕시코 경제 동향 분석

(2012. 11. 8)

멕시코시티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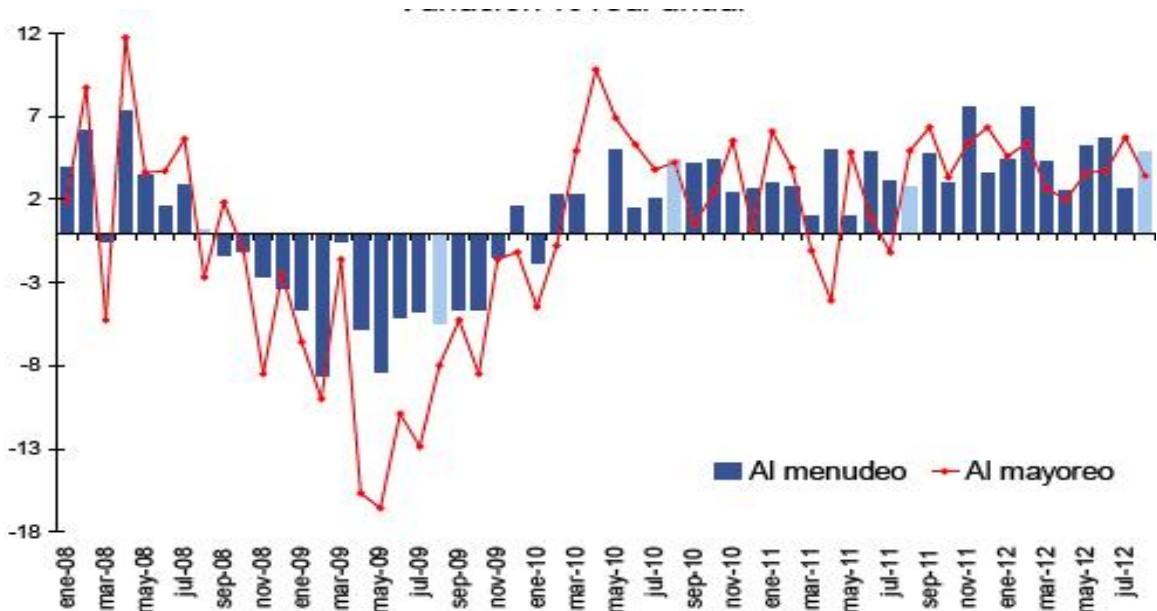
1. 멕시코 경제 동향

□ 8월 소매판매 4.8% 증가

- 8월 멕시코의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에 비해 4.8% 증가하였고, 도매판매는 전년 동월에 비해 3.4% 증가하였음. 계절성을 감안한 수치로는 도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0.59% 증가하였고, 소매판매는 전월에 비해 1.06% 증가하였음.

월별 도·소매판매 증감율

(단위 : %p)



자료 : 멕시코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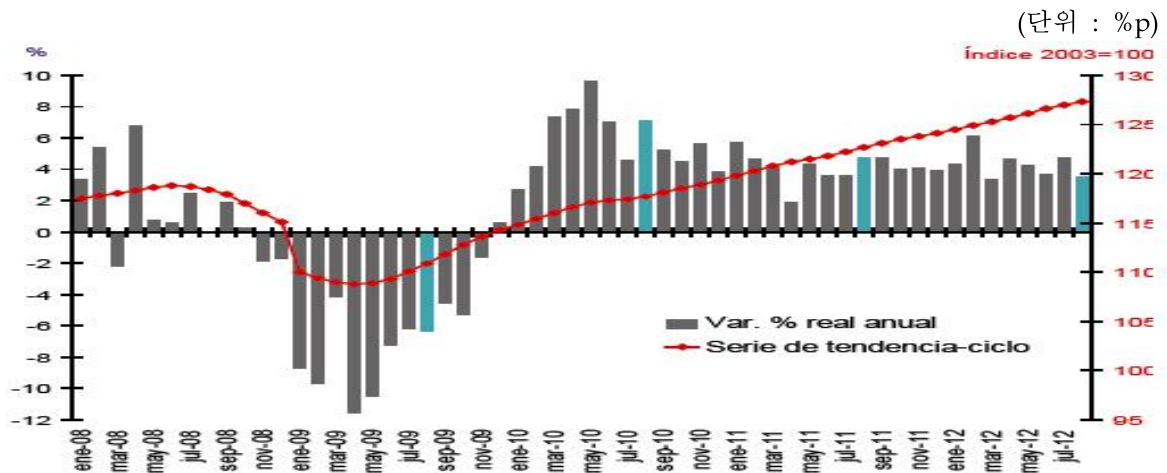
□ 8월중 월간경제활동지수 3.5% 성장

- 멕시코의 8월중 월간경제활동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5% 성장하였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지수 성장률임. 산업별

로는 3차 산업이 3.8% 성장하여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2차 산업은 3.6% 성장하였고 1차 산업은 2.3% 성장하였음. 계절성을 감안한 수치로는 8월중 경제활동지수가 전달에 비해 0.41% 감소하였음.

월간경제활동지수 성장률

(2003년 지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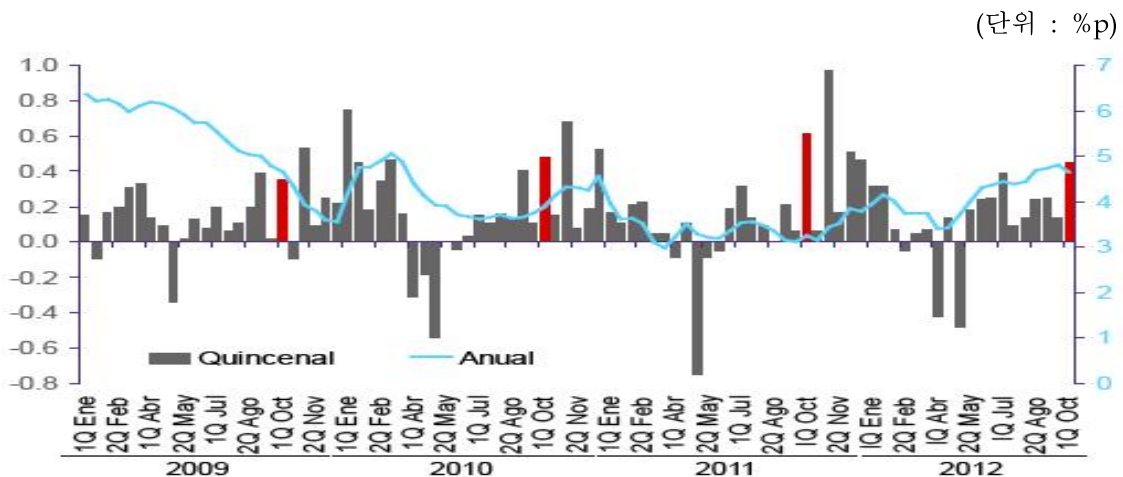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통계청

□ 10월 첫 15일, 소비자물가지수 0.45% 상승

- 10월의 첫 15일동안 멕시코 소비자물가지수는 0.45% 상승하여 전년 동월의 0.61% 상승에 비해 안정적인 물가흐름을 보여주고 있음. 동 기간 중 연률로 환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64%로서 2012년중 소비자물가지수는 2.41% 상승하였음.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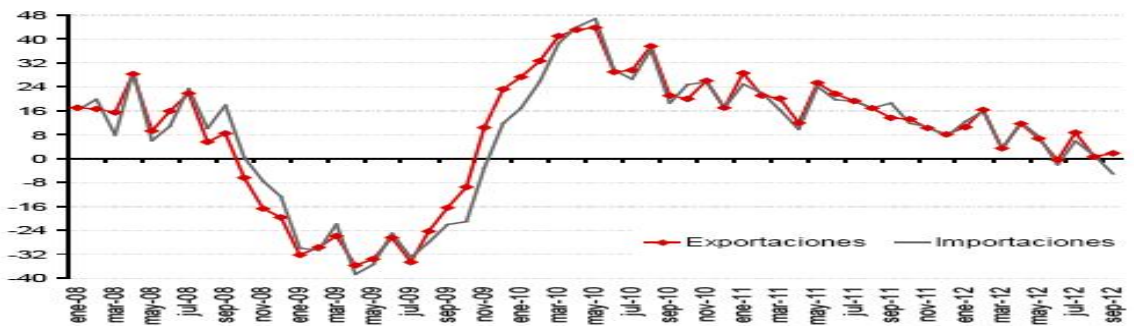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9월 무역수지 흑자 2.34억달러

- 9월중 무역수지는 2.34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의 18.70억달러 적자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2012년 9월까지의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총 21.17억달러로서 1996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의 흑자임.
- 9월중 수출은 1.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석유부문 5.4% 증가, 비석유류제품 1.2% 증가), 수입은 5.1% 감소하였음..

수출입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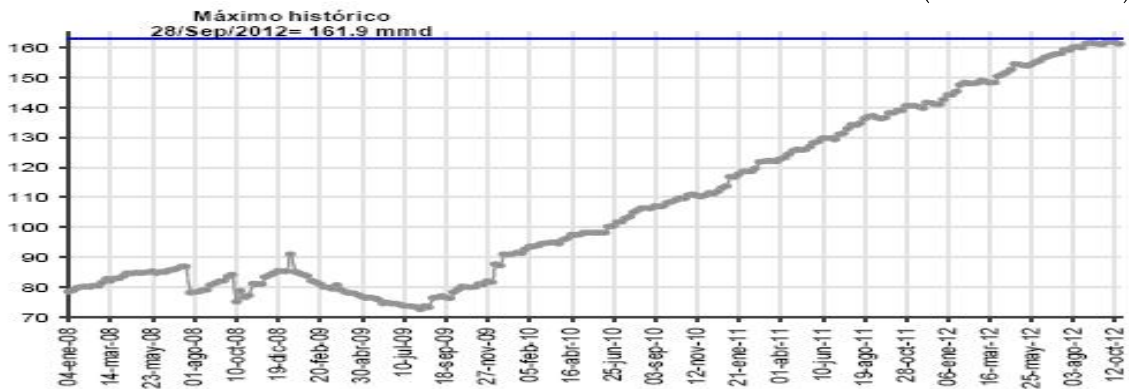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통계청

□ 10월 19일 현재 외환보유고 1,601.98억달러

- 10월 19일 현재 멕시코의 외환보유액은 1,601.96억달러로서, 이는 지난 주보다 4.27억달러가 감소한 수치로서 3주연속 감소하 것임. 동 외환보유액은 2011년말에 비해서는 186.23억달러가 늘어난 수치임.

주간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1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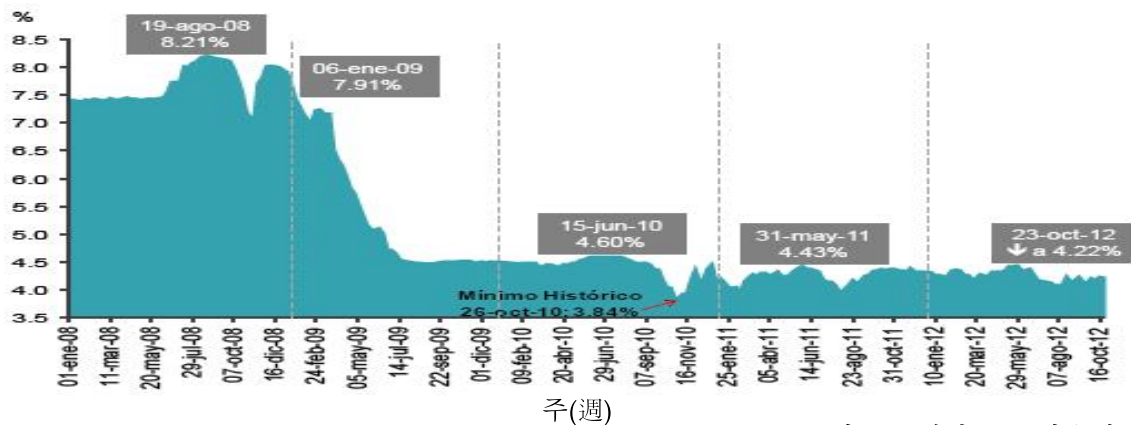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멕시코 기준금리(28일자) 전주대비 1bp 하락

- 10월 23일자 멕시코 기준금리(28일자)는 전주대비 1bp 하락한 4.22%를 기록하였으며, 기간별로 3개월물(91일자)은 전주대비 2bp 하락한 4.37%를 기록하였고, 6개월물(175일자)은 전주 대비 2bp 상승한 4.56%를 기록하였음.

연도별-주별 기준금리 동향 (CETES 28일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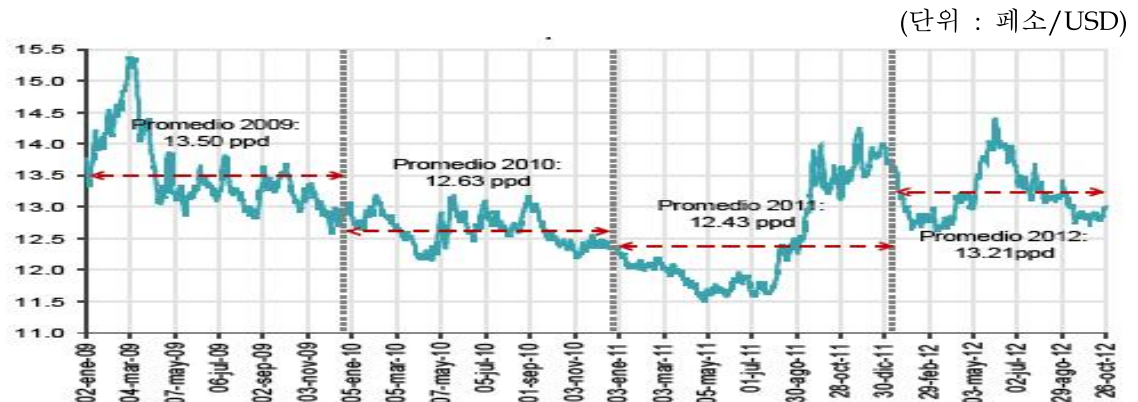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페소 달러 환율 상승세(페소화 약세)

- 10월 26자 기준 페소/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16센트 상승한 달러당 13.0112페소에 마감.
- 2012년중 달러대비 평균환율은 13.2086페소를 기록하였고 이는 페소화 가치가 전년말 대비 94센트(-6.7%) 평가절상된 것임.

페소화 환율 동향(2009~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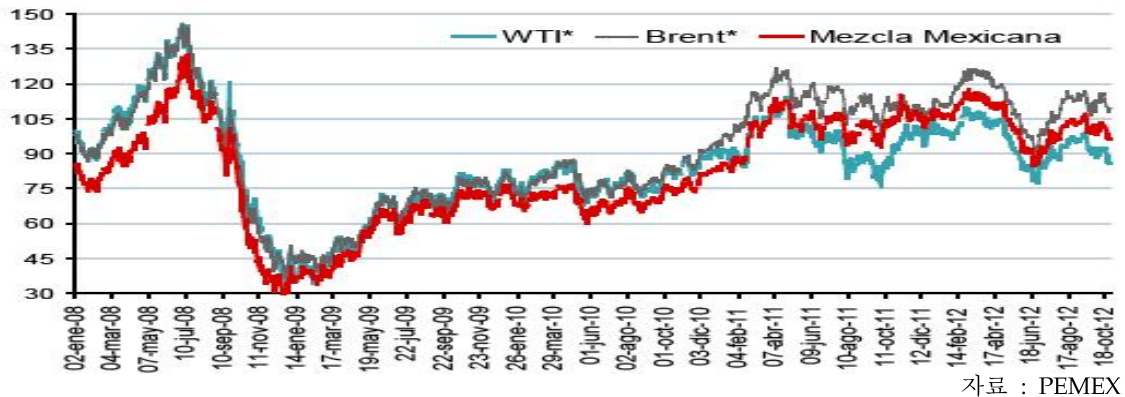


자료 : 멕시코 중앙은행

□ 원유수출가격

- 10월 25일자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96.54달러/배럴로 전주대비 3.36달러/배럴 하락하였음.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2012년들어 8.46달러/배럴이 하락하였으며, 평균 수출가격은 103.59달러/배럴임.
- 한편 서부텍사스중질유의 선물가격은 배럴당 3.77달러 하락한 86.28달러/배럴을 기록하였고, 북해산브랜드유의 선물가격은 배럴당 0.59달러 하락한 109.55달러/배럴을 각각 기록하였음.

원유수출가격동향(배럴당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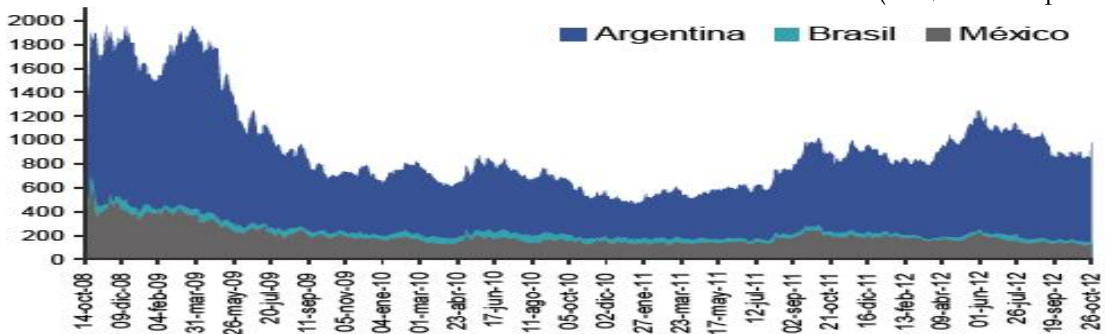


□ 멕시코 EMBI+ 지수 14bp 상승

- 10월 26일 현재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 이머징마켓 채권지수 (EMBI+)는 전주 대비 14bp 상승한 131bp를 기록하였음. 또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채권지수는 전주 대비 각각 121bp와 9bp 상승한 987bp와 154bp를 기록하였음.

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EMBI+)

(단위 : basis point)



2. 기관별 경제관련 전망

□ Banamex은행 “2012년 인플레이션률은 4.1%”

- Banamex은행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한 경제전망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의 2012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지난번 조사때와 거의 비슷한 4.1%로 예측되었고, 2013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지난번 조사와 비슷한 3.7%임. 환율전망의 경우 2012년말에는 지난번 조사때보다 페소화 강세를 예상하여 12.80페소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13년말에는 달러당 12.50페소로 전망하였음.
-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번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망치를 보여주었는데 2012년의 경우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2013년에는 지난번보다 약간 높은 3.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음.

□ Citi은행 “20년후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큰 경제대국은 멕시코”

- Citi은행의 라틴아메리카 투자자산관리회장인 레나토 그랑몽크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에서 향후 20년후 가장 큰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인데 왜냐하면 멕시코는 1) 건전한 공공용 2) 건전한 금융시스템 3) 유리한 지리한 위치 4) 개방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따라 멕시코의 국가 신용 등급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음.